



KHNMC DOCTOR

류마티스내과
이상훈 교수

전문진료분야

강직성척추염,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및 자가면역질환, 통풍

문의

02-440-7452



QR코드를 스캔하면 이상훈 교수의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www.khnmc.or.kr



blog.naver.com/khnmc06



www.facebook.com/khnmc2006



www.youtube.com/user/KHNMC2006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 대표전화 : 1577-5800

동병상련으로 늘 환자와 함께하고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몸소 입증하다



류마티스내과 이상훈 교수

- 차세대 명의 '목련 교수' 로 선정된
'강직성 척추염' 전문가
- 강직성척추염,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일상생활에 지장 없어
- 같은 병을 이겨낸 의사가 진료
동병상련으로 교감과 신뢰 형성, 예후도 좋아
- 좋아진 환자를 보면 자기 일처럼 기쁘고
의사로서 보람 느껴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상훈 교수

내키지 않는 가정이지만, 자기가 꽃다운 나이에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렸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다행히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끝을 짐작할 수 없는 만성질환에 말이지. 그때 어떤 의사를 간절하게 원할까요? 누구나 명이라고 답하겠지만 명의란 대체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런 의문을 품고 류마티스내과 이상훈 교수를 찾았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강직성 척추염 전문가로서 2016년 올해 처음 시행된 ‘목련교수’ 프로그램에 제1기로 선정됐습니다. 목련교수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이 차세대 명의를 육성하기 위해 젊고 역량 있는 교수를 선발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해서 각지에서 환자들이 찾아온다니, 원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척추 강직 드물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어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느껴지겠죠. 아직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한 나이니까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 환자가 특히 많거든요. 세상이 끝장난 듯 절망도 하지만 무엇보다 굉장히 무서워해요. 일단 듣기에도 병명 자체가 무시무시하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는 온몸이 다 굳어서 죽는다고 오해하기도 해요. 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과 불안이 많죠. 같이 오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차분한 목소리와 달리 내용은 심각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전 잠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했는데 당사자들은 오죽할까요.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척추, 어깨, 고관절 같은 중심 관절을 침범합니다. 관절 주위의 인대 조직이 망가져서 석회화가 되면서 뼈처럼 되는 병이에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를 싸고 있는 인대가 뼈처럼 석회화가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대나무처럼 마디가 붙어서 굳어요.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허리와 등을 거쳐 목까지 올라갑니다.”

척추가 강직되면 운동 제한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고와 합병증의 위험성도 크고요. 다행히 척추 전체에 강직 증상이 오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망가진 관절과 강직된 척추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운동으로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이 아주 잘 듣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멀쩡합니다. 격투기 선수나 특전사 군인도 있어요. 처음에 제대로 치료를 시작해서 10~15년 정도만 진행을 억제하고 관절의 영구적 손상을 방지하면 그 이후에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입니다. 면역세포의 공격은 서서히 약해지니 마련이라서 자가면역 질환은 항상 초기 10~20년의 치료가 중요해요. 증상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관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교수는 고혈압과 당뇨병 역시 완치 개념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역시 꾸준히 잘 관리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합병증이 더 적고 완전 관해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병을 이겨낸 의사가 진료 동병상련으로 교감과 신뢰 형성, 예후도 좋아

이상훈 교수는 겸손하게 신약 덕분이라고 했지만, 혼자만 약물 처방을 하는 것도 아닌데 환자들이 물리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 교수를 찾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 수가 1년에 1,500명을 넘습니다. 거기엔 분명 다른 까닭이 있을 듯했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고3때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했어요. 당시에는 정확한 병명을 아는 데만 5년이 걸렸고, 정작 진단을 받아도 암울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치료를 받았고 전공까지 류마티스내과로 선택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을 앓는 의사가 진료를 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환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조금 넘으니까 환자들이 제법 많이 모였어요. 지금도 많이들 입소문이나 추천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제가 무슨 연구업적이 큰 것도 아니고, 수술하는 과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이상훈 교수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듣는 쪽에서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장기간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 만성질환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특히 중요하거든요. 환자의 변화, 약효와 부작용을 세심하게 체크하려면 신뢰에 기반을 둔 밀접한 동반자여야 합니다.

“저 역시 겪어봤기 때문에 환자의 처지와 심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환자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되도록 길게 듣고자 노력하죠. 반대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 주면 도움이 될까도 환자 입장에서 다시 고민해요. 똑같은 치료를 해도 공감과 신뢰가 형성되면 예후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교수가 강직성 척추염 환자를 위한 강좌와 운동 동영상 제작해서 유튜브에 공유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교수는 환자들이 원하는 바로 그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명의라고 할 수 있죠. 환자의 아픔을 잘 공감하고 이해하며, 평생 동반자로서 환자와 함께하고, 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크고 잘 알며, 병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몸소 입증한 의사. 환자로서 더 바랄 것이 있을까요?

아무 문제없이 좋아진 환자를 볼 때 자기 일처럼 기쁘고 의사로서 보람 느껴

이상훈 교수가 류마티스내과를 선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본인이 강직성 척추염 환자였다는 이유 말고 다른 동기도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울림이 더욱 컸습니다.

“대부분의 내과 질환은 의사가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해도 정작 환자 본인은 치료가 되고 있는지 느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만성질환은 더욱 그렇죠.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류마티스내과 질환은 당사 통증이 가라앉고 불가능했던 일상 생활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주치의에게 너무 감사해 하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 형성도 질적으로 달랐어요.”

공치사 듣는 게 좋아서는 아닐 겁니다. 극적으로 호전 되거나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환자를 볼 때, 자기 일처럼 기쁘고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불안해하던 환자가 나중에 단란한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데리고 인사하러 올 때, 내가 의사라는 직업을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뿌듯해요.”

류마티스 질환은 절대 사양하겠지만, 이상훈 교수 같은 의사가 있다는 사실은 왠지 든든합니다. 이런 ‘공감과 희망의 명의’가 주치의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달콤하고 행복한 상상을 하니까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졌습니다.

강직성척추염 클리닉 운영으로 내·외과적 ‘퍼펙트 치료’ 제공

이상훈 교수는 강직성 척추염만 전문으로하는 특수 클리닉을 개설하여 국내에서 수술을 가장 많이 집도한 김기택 정형외과 교수와 외과·내과 협진을 통해 수술적 치료 및 약물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류마티스내과 이상훈 교수

